

내달부터 우측보행 본격 시행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편의 '기대'

7월 1일부터 우측보행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측보행 시설을 개선하고 거리홍보와 캠페인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우측보행은 지난해 4월 열린 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량이 우측통행을 하고 있음에도 보행자의 좌측통행은 불합리하며 △오른손잡이가 많은 인체 특성상 우측통행이 편리한 것으로 연구되었고 △교통안전차원에서 도로상 보행자 좌측통행의 일률적 권장은 불합리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보행문화 개선방안으로 발표됐었다.

우측보행은 좌측보행에 비해 △차량과 보행자간 대면통행으로 교통사고 약 20% 감소 △보행자의 심리적 부담 약 13~18% 감소 △보행속도 1.2~1.7배 증가 △보행자간 충돌횟수 약 7~24% 감소 △보행밀도 19~58%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 우측보행이 관습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국제적 관행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지하철·철도역사·공항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대해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한다

특별대책팀 가동, 스쿨존 지정 확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남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부경찰서와 남부교육청,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대책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통해 스쿨존 지정 확대

와 불법행위 단속, 안전시설 설치, 구민캠페인과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 등 다각도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스쿨존이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남구 漫評

채규중



“이 안에 평화있다”

■ 지역 치안협의회 소식

아동안전 수호천사 협약식

최근 발생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경찰 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아동안전 수호천사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관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과 야쿠르트 판매사원을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위촉했다. 이에따라 기존의 한정된 공간에서 운영되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서는 수호천사들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관내 치안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호천사들은 근무를 하면서 아동안전 수호천사 배지와 어깨띠를 걸고 아동 대상 범죄 예방활동에 힘쓰게 된다.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남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구정 5층 정보화교육장에서 열리는 정보화 교육은 컴맹탈출, 인터넷 정

보 따라잡기 등 4개 강좌에 모두 150여명의 수강생을 기다리고 있다. 수강신청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저소득층 우선 선발. www.bsnamgu.go.kr, ☎607-4306, 4301

지방세 납부하고 마일리지 받으세요!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전자고지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 신청방법 : 은행에서 쓰시는 "공인인증서"로 즉시 가입가능합니다(사이버지방세청 회원가입 후 전자고지 신청).
- ▶ 전자고지는 정기납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에 한하여 종이고지서 없이 전자메일, 휴대폰 SMS로 부과액을 안내합니다.
- ▶ 전자고지후 납가내 납부한 납세자 분

께는 종이고지서 발송시 소요되는 비용(건당 36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드립니다.

- ▶ 마일리지는 계좌입금으로 신청하시면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전자고지는 신청한 월의 다음 정기분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 문의 : 재산세 607-4201~6, 자동차세 607-4211~4, 주민세 607-4251~4

뉴새마을운동 성공 추진 다짐

2010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새마을운동남구지회(지회장 안상호)는 지난 11일 전남 담양에서 안상호 지회장과 김점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김금옥 새마을부녀회장, 설임생 새마을문화회장 등 지회 회장단과 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를 열었다.

새마을지도자의 결속력을 높이고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일과를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대회에서 안상호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마을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새마을지도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지역발전전에 이바지하는 지회로 거듭나자"고 밝혔다.

내빈으로 참석한 이종철 구청장과 이희철 의장은 격려사와 축사를 통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되살려 우리 남구가 행복일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새마을운동 활성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전남 담양 대나무골 테마공원에서 뉴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수지도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대연1동 강현순 지도자 등 모두 55명이 새마을운동 발전과 뉴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1부 행사를 마친 지도자들은 대나무골 테마공원과 소재원, 한국가사문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해 온 우

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양을 쌓았다.

특히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원림 소재원을 찾아 조상들의 고고한 품성과 절의를 몸소 체험하고 한국가사문학관에서는 송순의 면앙집과 정철의 송강집 등 가사문학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155·583번 남구8번 버스

야간 시간대 노선 임시 변경

시내버스 155번과 583번, 남구마을버스 8번의 운행 노선이 공사 관계로 변경된다.

남구는 대연3동 송선마을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를 위한 야간 공사 기간 중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구간을 지나는 일부 버스의 야간시간대(22:00~익일 06:00) 노선을 6.25~7.10일까지 임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경대에서 대전중학교

를 거쳐 한국산업인력공단 방면으로 운행하던 155번과 583번 시내버스 노선이 대전초등학교를 경유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운행하게 된다.

남구8번 마을버스는 남부면허시험장~대전중학교~UN평화공원을 운행하는 노선은 영남제분과 대전초등학교를 거쳐 UN평화공원으로 경유하게 된다.

메가마트~대전중~UN평화공원 노선은 영남제분과 대전초등학교로 우회 운행한다. ☎607-4561

부산시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대연정보고 석축정비공사 착공

대연정보고는 최근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원을 지원받아 균열석축 정비공사에 들어가 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공사는 지난해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해위험지 북구공사의 잔여부분으로 그동안 학교는 수해복구를 위해 교육청과 재단의 예산 1억 8,000만원을 투입, 본관 뒤편 식당과 가사실 등의 토사를 반출하고 법면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붕괴위험이 높은 석축정비공사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착공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열린 전안환 회생자 고 문영옥 중사 추모식에 참석한 허남식 시장에게 알려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박일도 교장은 허남식 시장에게 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같이 참석한 이종철 구청장과 김정훈 국회의원도 지원을 부탁하며 힘을 보탰다.

허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달 4일 시장실에서 박 교장과 면담시간을 가졌다. 이후 사업추진 방안 회의 등을 통해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교체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Q&A

법제정에 따라 기존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변경돼 6월 중으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이 교체된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 내용.

Q 왜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바꾸나?

A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단순한 생활권의 증진이 목적이었으나 관련법 제정과 시행으로 도로명주소가 2012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게 됐다. 이로 인해 도로명주소 부여체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시말해 도로명이 많아 위치 찾기가 어렵고 부적절한 도로명을 그대로 주소로 사용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전국 통일을 기

해 영구적인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Q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A 도로구간 설정을 특별·광역시 단위, 시·군단위로 '서→동', '남→북' 원칙을 준수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도로명 부여는 도로 폭의 크기에 따라 도로위계('대로', '로', '길')를 구분하여, 도로명만으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Q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은?

A 6월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완 일제 고지·고시하여 주민등록 주소, 각종 인·허가 신청시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2.1월부터는 현재의 주소를 대체하여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607-4741~5

남구예술회 문인회 야외시화전

남구예술회 문인회(회장 김달현)는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회원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해 야외시화전을 연다.

1차 전시는 7.3~7.11일까지 이기대 해안도로변 어울마당 주변에서, 2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안전 무상 점검



남구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세대 등 관내 재난취약가구 340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등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와 감전 등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세대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과 노후 시설을 교체해줬다. 또한 가정 내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가구 124세대에 가스안전차단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줬다.

이와 더불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생활 속 재난상황에 대한 안전 교육을 병행 실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607-4064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남구는 지난 9일 경성대·부경대 지하철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생활민원 종합 상담실'을 열고 무료로 각종 생활관련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시와 사진과의 만남전 남구문화원(원장 성재영)은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UN기념공원과 평화공원 일원에서 6·25전쟁 60주년 맞이 '제2회 시와 사진과의 만남전'을 열었다.



멘토·멘티 만남의 날 부산남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곡진숙)는 지난 7일 결혼이민여성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의 1:1 멘토 결연식을 맺고 멘토·멘티 만남의 날을 가졌다.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부산남구생활체육회(회장 강이수)는 지난 20일 2,8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백운포체육공원 등에서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를 열었다.



반딧불이 체험행사 남구와 아름다운남구추진협의회(회장 윤현수)는 지난 10일 이기대공원 큰고개습지에서 환경사랑걷기, 사생대회, 반딧불이 관찰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기대 자연보호 앞장 자연보호남구협의회(회장 송영국) 소속 위원 20여명은 지난달 26일 이기대 자연공원 일원에서 반딧불이대행(다슬기) 주기 행사를 열고 자연보호에 앞장섰다.



황령산둘레길 걷기대회 남구걷기동호회(회장 한정석)는 지난 12일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림사 주변 기념 황령산둘레길 걷기대회를 열고 황령산 일대를 돌며 건강을 다졌다.



유채꽃단지 씨 채취 새마을운동남구지회(지회장 안상호) 소속 회원 100여명은 지난 17일 백운포 재화원선별장 인근 산지에 조성된 유채꽃 단지에서 유채씨를 채취했다.